

# 침체의 골 깊은 건설시장, 기계설비업계의 과제



김재영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센터장

## ■ 2011년 건설경기 침체 지속

2011년 3분기에 들어서 2009년 이후의 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지표의 움직임이 미약하지만 감지되고 있다. 선행 건설경기지표인 건축허가와 착공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통보실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표의 움직임만으로 건설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동행건설경기지표이면서 거시경제의 움직임과 연관성이 큰 실질건설투자는 3분기에도 여전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의 움직임이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인지는 4분기의 건설경기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4분기에도 3분기와 같이 건축허가와 착공 그리고 계약통보실적이 증가하고 실질건설투자도 증가로 전환되어야 3분기의 움직임이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2012년 1분기까지는 지속되어야 2012년 2분기부터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3분기 선행 건설경기지표의 큰 폭 증가가 전년도 같은 분기의 큰 폭

하락에 따른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분기까지의 움직임만으로 본다면, 건설경기 침체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면 곧바로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건설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복은 2012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다. 즉 2012년에도 건설경기의 뚜렷한 회복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건설업체의 어려움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 2012년에도 기계설비업종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종합공사업의 경우, 2011년 3분기(7월~9월) 기간 동안 신규 등록된 업체는 총 151개사였으며, 말소·폐업 업체는 194개사로 총 43개사가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2011년 9월말 현재 종합공사업체수는 11,809개사이다. 반면에 전문공사업체의 경우에는 3분기에 신규등록 632개사, 말소·폐업이 685개사로 53개사가 감소하였다. 전문공사업체는 2010년 1분기와 2분기, 3분기 모두 증가세를 이어 왔으며, 4분기 감소 이후 2011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3분기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11년 9월말 현재 전문공사업체수는 45,786개사이다.

2008년 겸업허용 이후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겸업한 업체는 2011년 9월말 현재 총 688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전부터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해 겸업이 허용되었던 업종<sup>1)</sup>(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석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겸업한 업체는 총 1,218개사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건설업체수는 전년도 동분기(2010년 3분기)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종합공사업은 2.8% 감소한 반면, 전문공사업은 0.1% 증가하였다. 이중 기계설비업종(가스1종포함)은 2011년 3분기현재 6,401개사로 2010년에 비해 119개사, 1.9% 증가하였다. 이는 전문건설업 전체 증가율보다 높은 셈이다.

한편 2011년 3분기에 발생한 건설업체 말소 및 폐업 건수는 879건이며, 종합공사업이 194건, 전문공사업이 685건이다. 이중 기계설비업종은 99건이었다. 3분기 말소 및 폐업 사유로는 등록말소가 415건에 47.2%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종합공사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68.6%에 달하고 있다. 자진폐업은 총 396건으로 45.1%에 달하고 있으며, 전문공사업의 자진폐업 사유는 51.2%에 달하고 있다. 포괄 및 양도합병에 의한 소멸사유는 68건 7.7%로 나타났다. 기계설비업종의 경우 자진폐업이 59건에 59.6%이었고 등록기준미달이 8건 8.1%, 주기적신고 미이행이 7건 7.1%, 영업정지위반은 1건도 없었으며 폐업사실을 확인하여 말소시킨 예가 13건 13.1%이었다. 자진폐업만 비교할 때 전문건설업 전체보다 기계설비업종이 더 높았다.

건설업계의 동태를 살펴보면, 기계설비업계가 종합건설업계나 타 전문건설업계보다 불안정성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계설비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업종에 비해서 건설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축경기와 연관성이 깊은 부동산경기에 기계설비업종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기계설비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기계설비업계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2012년도도 기계설비업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2012년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 ■ 2012년 설비업계의 과제

2012년에는 건설경기가 전환기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건설시장은 수요와 공급 모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외경제여건의 변화가 국내 경제여건에 영향을 미쳐 건설물가도 매우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건설산업에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2년 상반기에 있을 총선,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대선은 과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경기나 건설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건설인력 구인난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심각한 구인난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역이나 건설현장에 따라서는 건설기능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업계 전체가 당면하게

1) 2007년 5월 17일자로 삭제된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상기 7개 전문업종은 일반건설업자의 겸업이 허용되어 있었다.

될 것으로 보이며 기계설비업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2012년 기계설비업계의 중요한 과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2012년 기계설비업계의 과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기계설비 시장 동향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위기에서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우선 기계설비업계의 과제는 스스로가 대응 전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협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협회가 중심이 되어 현 기계설비시장의 침체에 대응하여야 하고 지속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현 여건을 감안할 때, 2012년에 기계설비업체와 업계의 과제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시장을 확보하는 것과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기계설비업계 내의 공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기계설비시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기계설비시장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계설비공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실적공사비 개선작업에 기계설비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업계의 입장에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합의를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국내 기계설비시장을 고려할 때, 해외 기계설비시장의 진출도 고려해 볼 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가 중심이 되어 해외건설협회 등과 협력하여 해외 기계설비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과제는 기계설비업체 간 공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계설비 입장에서 건설생산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기계설비업종에 대한 겸업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겸업제한 폐지 이후의 전개방향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사 발주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공생발전 차원에서 기계설비업계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끝으로, 2012년에는 건설물가나 건설임금 등의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며 이는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업계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2012년 기계설비업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침체의 골이 깊기 때문에 2012년에도 건설산업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설비업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2012년에는 2011년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존립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2012년의 기계설비업계의 과제는 그러한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2012년의 과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제의 해법은 공생발전에 있을 것이다. 이는 기계설비업계와 협회가 합심하여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2년은 기계설비업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가능성을 찾는 한해가 될 것이고, 기계설비업계와 협회가 공생발전의 실마리를 찾는 그 시점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